

中, 히토류 美수출 봉쇄… ‘공급망 쇼크’ 대책마련 전전긍긍

K-방산·배터리 ‘발등의 불’

韓 중국산 히토류 의존도 80%
美 편입 등 공급망재편 가능성
미·중 갈등 속 균형전략 필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중국이 히토류 금수카드를 본격화할 태세여서 미국발 관세전쟁이 ‘광물 무기화’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산업계는 공급망 불안에 대비해 자재 비축과 원료 확보에 분주한 모습이다. 업계 안팎에선 중국 히토류 의존도를 낮추는 동시에 정부의 균형 있는 외교와 전략적 협상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팽배하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이달 초 사마륨, 가돌리늄 등 중히토류 7종과 이를 가공한 영구자석의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특히 한국기업에 중국산 히토류를 사용해 생산한 제품을 미국 업체에 수출하면 제재하겠다는 경



미국 캘리포니아주 모하비 사막에 있는 마운틴 패스 광산의 히토류 광산. /뉴시스

고성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지며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이 ‘세컨더리 보이콧’ (관련 제3자에 대한 제재)으로 확산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중국은 글로벌 히토류 1위 생산국으로 전 세계 생산량의 69.2%를 차지한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중국의 히토류 가공 및 정제 산업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90%에 육박할 것으로 보고 다. 특히 한국은 국내

수요 히토류의 상당 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지난해 중국산 히토류 수입의존도는 79.8%에 달한다.

히토류는 이차전지, 첨단무기, 반도체 등을 만들 때 필요한 미래산업의 핵심 원료인 만큼 이번 조치로 인해 방산 업계와 배터리업계를 비롯한 산업계 전반에 타격이 우려된다. 특히 방산 기업은 항공기 기체, 엔진 등 희귀 금속 수급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며 배터리의 핵심 소재 역시 공급망 불안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차전지 핵심 부품에 쓰이는 히토류 17종 가운데 50% 이상이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어서다.

방산 업계는 원자재의 적정 재고를 지속 유지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국내 배터리 업계는 당장은 비축해 둔 재고 덕분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원자재 가격 변동성이 커지고 있어 보유량을 정확하게 산정해 적정량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히토류 가격은 지난 10년간 두 차례 급등한 바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난 2011년에는 톤당 1만 4000달러(약 1980만원)까지 치솟았고 2021~2022년 사이에는 약 1만 1500달러(약 2100만원)까지 상승했다. 두 시기 모두 중국의 수출 제한 조치와 관련이 있었으며 이번에도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산업계는 이번 조치가 단기적인 공급 차질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이어질 지에도 주목하고 있다. 미국이 히토류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한국이 미국의 공급망 전략에 편입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LS에코에너지는 현재 히토류 사업 추진을 위해 경영지원 부문장 등으로 구성된 팀을 가동 중이다. 향후 히토류 트레이딩 업무를 담당할 인력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미국산 히토류 확보에 사활이다. 지난 3월 미국 최대 히토류 기업 에너지퓨얼스와 디뮴-프라세오디뮴 산화물 납품

관련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장기적으로 히토류에 대한 대체제가 개발될 경우 중국이 이를 전략무기로 활용하기는 점점 어려워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정부는 한국 기업들이 중국과의 협상에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력해야 하며 가급적 중립적인 외교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미국이 우리를 전략적으로 보는 건 한국이 중국과의 협상 혹은 상황 조율을 잘할 때 더욱 가치가 생기는 것이고 지나치게 미국에 의존적이면 협상카드로서의 위치도 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기업들도 스스로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고 정부는 미국과는 원활한 파트너십을 유지하면서도 중국과는 협상의 여지를 남기며 신뢰를 쌓아가는 방식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국립부경대학교

모두의 미래, 함께하는 꿈!

Toward the Future, Dreaming Together!

강한 대학 | 지식 혁신 | 연계 협력 | 화합 미래

지역을 넘어 세계와 미래로 나아가는 혁신대학,
국립부경대학교가 “모두의 미래, 함께하는 꿈!”의 가치를 기반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립대학으로 도약합니다.

youtube



엔화가 100엔당 1000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서울 명동에 위치한 거리환전소. /손진영 기자

원·엔 환율 1000원 웃돌아 엔저 끝… 7개월 새 최고치

3년여 만에 원·엔 환율 1000원 지속
엔·달러 환율 달러당 140엔 초반으로

원·엔 환율이 연일 100엔당 1000원을 웃돌고 있다.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 연준에 금리 인하를 압박하면서 안전자산 수요가 엔화 가치를 끌어 올렸다. 엔·달러 환율이 미·일 관세 협상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엔화 강세를 부추기고 있다.

23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엔 환율은 100엔당 1001.97원에 주간 거래(오후 3시 30분 종가)를 마쳤다. 이날 원·엔 환율은 미·중 간 무역 합의에 진전이 있다는 백악관 브리핑 이후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전일 주간 종가 대비 소폭 하락했지만, 4일 연속으로 100엔당 1000원을 웃돌았다. 원·엔 환율이 지속해서 1000원을 웃돈 것은 지난 2022년 3월이 마지막이다.

엔화 가치의 지표가 되는 엔·달러 환율도 달러당 140엔 초반까지 내렸다. 특히 지난 22일(현지시간)에는 엔·달러 환율이 장중 139.88엔까지 내려, 지난해 9월 이후 최저(엔화 가치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엔·달러 환율이 달러당 160엔을 바라보던 연초와 비교하면 엔화 강세다.

최근 엔화 가치가 상승한 것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갈등을 격화한 데 이어,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 기준금리 인하를 압박해 달러 가치 하락을 부채질하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지난 21일(현지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미스터 투 레이트(Mr. Too Late)”이자 중대 실패자가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경기 둔화가 있을 것”이라며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을 겨냥해 금리 인하를 압박했다.

이어 트럼프는 다음날인 22일에도 “그(파월 의장)를 해고할 생각은 전혀 없다”면서도 “연준은 금리를 내려야 한다. 지금이 금리 인하의 적기다. 우리는 연준 의장이 녹장을 부리는 게 아닌, 조기에 해야 할 일을 하길 바란다”라며 금리 인하에 대한 견해를 재확인했다.

트럼프가 일본과의 상호관계 협상에서 ‘엔화 약세 중단’을 협상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는 관측도 엔화 강세를 부추기고 있다.

/안승진 기자 asj1231@